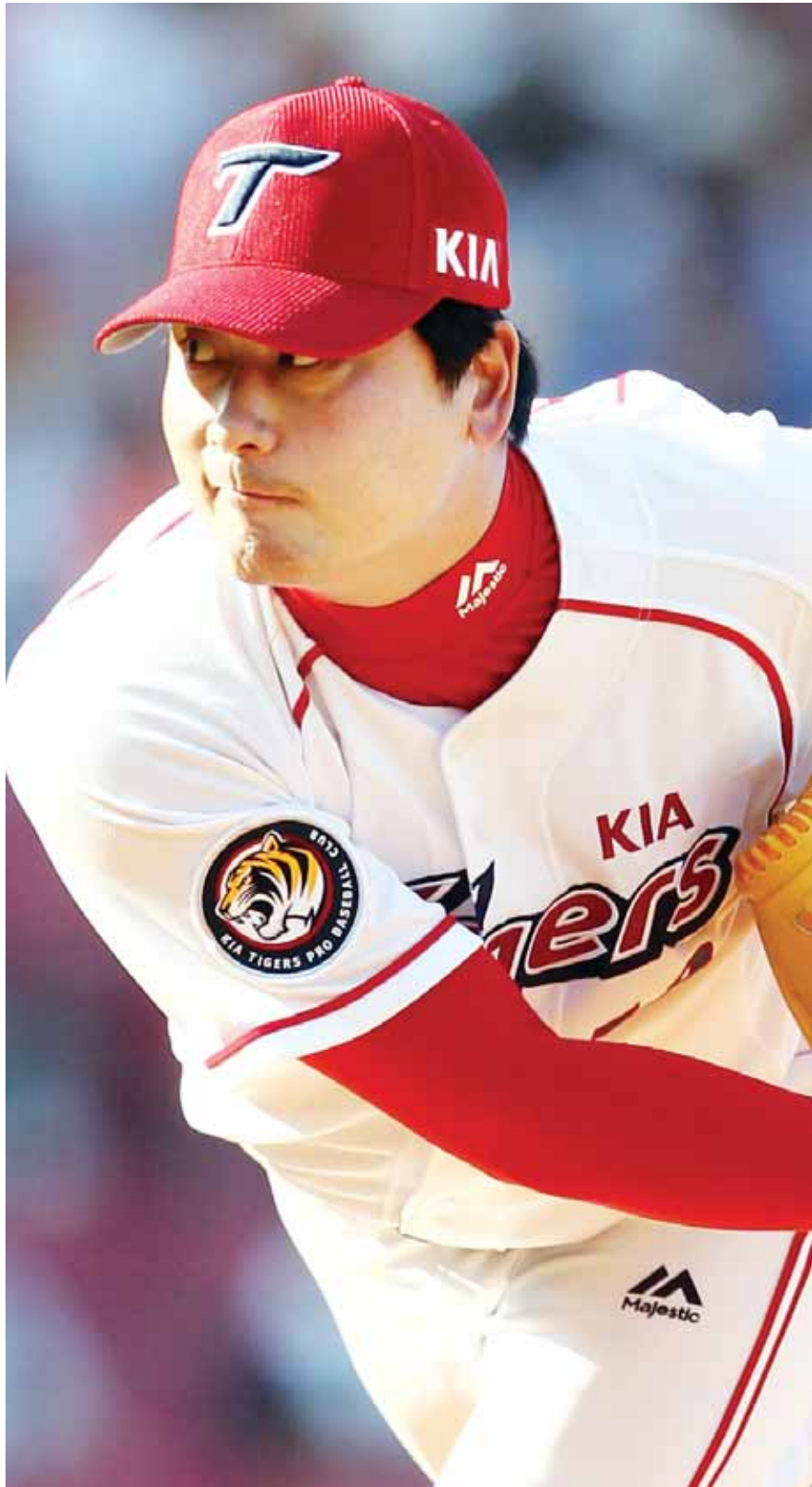


임시선발왕국, KIA



정용운



최영필

위기에 강한 '호랑이 군단'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KIA의 가장 큰 전력으로 꼽힌 것은 선발진이다. 뒷문을 지키던 윤석민이 선발로 자리 이동을 했고, 헥터와 지크 두 외국인 선수가 새로 전력을 구성했다. 여기에 지난 시즌 5선발로 9승을 수확했던 임준혁과 함께 신예 김윤동, 홍건희 등이 5선발 각축을 벌였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올 시즌은 헥터와 지크의 활약을 빼고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좌완 선발 첫 3년 연속 15승을 목표로 시즌 출발을 했던 양현종이었지만 예전의 승운이 없었다. 5월 13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야 7전7구로 어렵게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윤석민은 첫 등판에서부터 승리 투수가 되면서 화려한 선발 복귀전을 치렀지만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4월 17일 넥센 원정에서 1-2 '완투패'의 비운의 주인공이 됐

최영필·한기주·정용운 등 비상체제서 6승 3패

타선 평균 7득점·김광수 등 불펜도 승리 한몫

던 윤석민은 결국 4월 27일 어깨부상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그에 앞서 임준혁도 4월 23일 부상으로 자리를 비웠다. 이어진 우천 취소에 컨디션 난조를 보였던 그는 경기 도중 최준석의 타구에 왼쪽 종아리를 맞으면서 근육 파열 부상을 입었다.

부상이 겹치면서 결국 지난 21일 고졸 투기 전상현까지 10명의 선수가 선발투수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

윤석민이 로테이션을 거르면서 한기주가 먼저 임시 선발로 스타트를 끊었다. 그 뒤로 임기준, 최영필, 정용운, 전상현이 선발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 우려와 달리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임시 선발진이 가동

된 9경기에서 KIA는 6승 3패, 0.667의 승률을 기록했다.

의미 있는 승리도 많다. 21일 삼성전은 KIA의 열세가 점쳐지던 경기였다. 이날 경기 전까지 통산 21.2이닝을 던지는데 그친 경험부족의 좌완 정용운(KIA)과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컨트롤의 윤성환(삼성)이 만나는 만큼 쉽지 않은 경기가 예상됐다. 그러나 이날 경기의 패전투수는 삼성 안지만이였다. 나지완과 김주형에게 피홈런 두 개를 허용했던 윤성환은 패전은 면했지만 부상 복귀전을 치른 안지만이 나지완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으면서 경기가 4-2, KIA의 승리로 끝났다.

'나이스 가이' 서재응과 '빅조이' 최희섭의 은퇴식이 열렸던 15일 한화와의 홈경기에서는 최영필이 최고령 우완 선발 기록을 썼다. 선발 최영필의 등판은 2.1이닝에서 끝났지만 박준표-임기준-홍건희-심동섭-김광수가 남은 이닝을 지키면서 8-7 승리가 기록됐다.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한기주도 1668일만의 선발승, 3557일만의 5.2이닝이라는 기록으로 승리를 보태기도 했다.

위기 상황에서 타선의 집중력이 돋보인다. 임시 선발이 출격한 9경기에서 KIA 타자들은 평균 7득점을 만들어주면서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다. 김광수를 중심으로 불펜진도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해주고 있다.

선발 고민으로 어렵게 한 주 한 주를 풀어나가고 있는 KIA. 의외의 승률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예측 불허'의 2016시즌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황우진, 근대5종 세계선수권 제주 금

〈광주시청〉

광주 출신의 황우진(광주시청)이 2016 세계 근대 5종 선수권대회 남자계주에서 금메달을 땀다.

황우진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남자계주에서 전용태(한국체대)와 함께 1563점을 획득, 개최국 러시아(1550점)와 유럽의 강호 프랑스(1524점)를 제쳤다.

지난 3월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제2차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전용태는 올 시즌 두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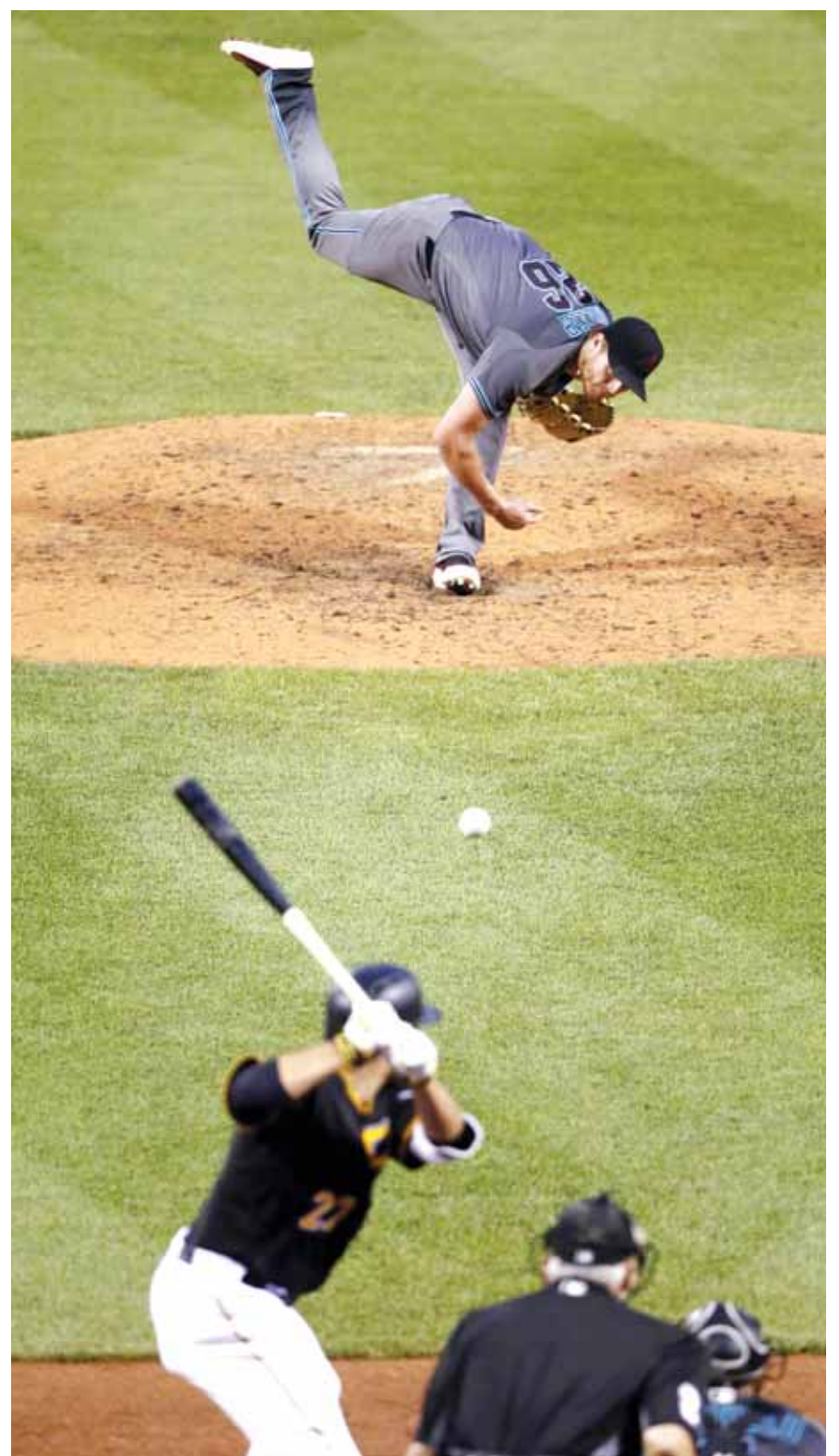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5 아시아선수권에서 리우 올림픽 출전권 3장을 이미 확보한 한국 대표팀은 27·28일 진행되는 남녀 개인전 결승에서 3위 안에 들 경우 추가로 올림픽출전권을 딸 수 있다.

한편 황우진은 2016 리우올림픽 아시아선 예선대회를 겸해 열렸던 지난해 아시아선



황우진(오른쪽)과 전용태. <국제근대5종경기연맹 제공>

수권에서 개인전 6위에 오르며 전용태(2위), 이동기(3위)와 함께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했다. 황우진은 이 대회에서 단체전, 릴레이단체, 혼성계주단체 3관왕을 차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미국프로야구(MLB)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가 애리조나 다이라몬드백스전에서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25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와의 경기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한 강정호는 6회말 1타점 적시 안타를 때렸으며 7회초 홈으로 들어왔다. 사진은 애리조나 선발 투수 셸비 밀러(위)를 상대하는 강정호(아래 왼쪽)의 모습. /연합뉴스



박태환, 대한체육회 면담 직전 연기 왜?

체육회 기존 방침 고수에 대응 방안 정리 중인 듯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묶여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는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 측이 대한체육회와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갑작스럽게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태환 측은 체육회 조영호 사무총장과 25일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내 체육회 회의실에서 면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면담은 오후 2시로 한 차례 미뤄졌다가 결국 무기 연기됐다.

체육회에 따르면 두 차례 연기 결정 모두 박태환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태환 측은 추후 면담 날짜를 다시 잡아 연락하기로 했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동안 선수자격 정지를 받았다가 지난 3월 2일 징계가 해제됐다. FINA 징계에서 풀린 뒤 지난달 말 열린 리우올림픽 경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네 종목에서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규정 위반으로 경기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는 체육회 규정 때문에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되자 지난달 26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중재신청을 해놓은 상황이다.

이날 예정됐던 조 총장과 만남은 박태환 측의 요청으로 추진됐다. 애초 18일 만나려 했다가 체육회에서 25일로 날짜를 새로 정했고, 회장 대신 사무총장이 면담에 나서기로 했다. 국내에서 훈련 중인 박태환은 면담에 직접 참석해 체육회의 입장 변화를 바라면서 올림픽 출전 기회를 달라고 호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만남 직전 돌연 면담을 연기했다.

면담을 앞두고 양측이 사전에 의견을 주

고받다가 입장차만 다시 확인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체육회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섬이 없는 것을 확인한 박태환 측에서 향후 대응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체육회의 규정 개정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박태환으로서는 이번 만남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만남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결국 박태환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관심을 받게 됐다. 현재 박태환의 선택은 체육회 규정을 받아들이고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CAS 중재에 맡기고 끝까지 리우행을 두드리느냐 뿐이다. /연합뉴스

강정호 'ML 용규 놀이'

끈질긴 승부근성...8구에 볼넷·9구에 안타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가 선발 복귀전에서 안타와 타점을 더했다.

강정호는 25일 미국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라몬드백스전에 4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손부상으로 최근 2경기에서 선발 제외됐던 강정호는 부상을 털고 원상 복귀했다.

강정호는 1회말 3번 타자 그레고리 폴랑코가 3점 홈런을 터트린 직후 첫 타석에 들어갔다. 애리조나 선발 투수 셸비 밀러와 상대한 강정호는 2구를 노렸지만, 2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강정호는 3회말 두 번째 타석에서 밀러의 몸쪽 높은 직구에 속아 헛스윙 삼진을 당했지만 세 번째 타석에서 홈루에 성공했다. 6-0으로 앞선 5회말 선두타자로 나

선 강정호는 플라운트에서 8구 몸쪽 커브를 골라내 1루에 걸려갔다. 복귀 후 14경기 만에 두 번째 볼넷을 얻어 출루한 강정호는 1사 1·2루에서 조디 머서가 병살타로 물러나 득점을 올리지 못했다.

강정호는 8-1로 앞선 6회말 2사 2루 네 번째 타석에서 애리조나 불펜투수 에반 마셜과 맞붙었다. 마셜은 슬라이더를 던지며 강정호와 정면승부를 피하다가 9구째 시속 153km 바깥쪽 높은 직구를 던졌다.

강정호는 기다렸다는 듯 가볍게 밀어쳐 중견수 쪽 1타점 적시 안타를 때렸다.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한 강정호는 타율이 0.262로 조금 올랐다.

피츠버그는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하며 애리조나를 12-1로 대파했다. /연합뉴스